

자율주행·수소차·로봇 등 '한미동맹' 확대될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한미 자동차 산업 협력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관세 인하를 넘어 자율주행차, 수소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 동맹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방미 일정에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자동차 관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정 회장도 대통령의 경제 외교에 동행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전망

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주목

자동차 관세 인하 여부가 핵심

정의선 회장, 경제외교 동행 지원

수소차·자율주행 기술 보완 협력

SDV·로봇 분야 확장 가능성

기술 중심의 新동맹 형성 주목돼

이번 회담이 단순 통상을 넘어 미래 기술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등에서 양국은 각기 강점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

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수소 SUV '넥쏘(NEXO)'를 양산 중이며, 미국 내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주행 및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앞서 있으며, 웨이모, 테슬라, GM 크루즈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분업 구조는 SDV 개발 가속화와 모빌리티 산업의 재편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온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전략과도 부합한다.

현대차그룹은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센터 운영과 함께, 보스턴다이나믹스를 통해 로봇·AI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최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를 통해 미국 법인인 HMG 글로벌에 4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HMG글로벌은 보스턴다이나믹스 대주주이자 신기술과 혁신기업 발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기술은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스마트 제조와 자율주행, 물류 자동차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과 수소차, 자율주행 등은 인프라와 데이터 기술의 결합이 핵심"이라며 "정책과 산업 양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기술동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양경제청, 중국 잠재투자기업 산업단지 투자상담 추진

울촌, 세풍 등 산업단지 방문 및 투자 밀착상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광양경제청장, 이하 광양경제청은 8월 22일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잠재투자기업이 울촌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투자관련 밀착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잠재투자기업 티더블유에스(TWS)사의 현장시찰은 올해 3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한 '제15회 국제에너지저장포럼'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 발굴한 기업으로 광양만권에 ESS제조 공장 설립 의향이 있어 방문이 추진되었다.

창업자인 레이몬드 룡(Raymond Leung)회장은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ESS제조 등 신에너지산업과 광양항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물류 등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광양만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래, 전남도의 RE-100 산단 추진과 523Mw규모의 중앙계약시장

유지 등 ESS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청도 글로벌 ESS기업의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광동성 500대 제조기업이자 ESS분야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티더블유에스(TWS)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생산 공장 건설과 기업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농수산물 수출 고금리·관세장벽에도 증가

7월까지 5억190만 달러 지난해보다 7.3% 늘어

전라남도는 고금리·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7월 말까지 농수산물 수출액이 5억 19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9천174만 달러로 1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8천68만 달러(10.9% 증가), 일본은 1억 2천989만 달러(6.6% 증가)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품 선호도

상승, 김 등 수산물 수요 확대 등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김을 포함한 수산물이 3억 3천177만 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이어 농산가공품은 8천126만 달러(16.2%), 분유 등 축임산물 4천802만 달러(9.6%), 배 등 신선농산물 4천84만 달러(8.1%)를 기록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증가



세를 이어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하반기에도 국가별 맞춤형 판촉과 수출 상담

회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23일까지 이틀간 국립나주

순채원에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25년 전남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가사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남지역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전

전남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 일환 23일까지 네트워크 데이

문강사 120여 명이 모여 ▲우수사례 공유 ▲명사 특강 ▲해커톤 연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갖는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8만 8천여 명 교육, 일자리 238개 창출,

전문강사 247명 양성, 지역 특화 커리큘럼 60건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심상완 전남도 연구개발·인사담당관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미래 전남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수출 중기 지원 등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발표

일자리·농해수산물·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 누리집 공개

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을 선발,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함께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권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시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이 활성화되고 ▲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베트남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행사로서 승인받아 성대하게 열리고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회당 5만 원, 최대 15만 원을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나선다

조폐공사코나아이 등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업무협약

플랫폼 구축... 참여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전라남도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코나아이(대표이사 조정일)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녹색생활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코나아이(주)는 플랫폼 참여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협력한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민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며 도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민은 일상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나무심기 등 10여 가지 전남형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전남 전역에 정착시켜 청정 전남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